

무대 위에서 자신의 기량 '맘껏'

대상에 초청한씨 '영예' ... 최우수상 - 이운봉씨
은상 - 김동복 · 박대홍, 동상 - 김태희 · 노재성씨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 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가요제에서는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장애인 500여명이 참여했다.
가요제에서는 식전공연, 개회식, 경연대회,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선물 증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자신들의 노래실력을 뽐냈다.
이번 전국 장애인가요제에서는 초청환(대구)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운봉(경북 구미)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은상에 김동복(전

주) · 박대홍(전주)씨, 김태희(인천) · 노재성(전주)씨는 동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에는 전성일(전주) · 유민정(부산)씨가, 인기상에 임남국(전주) · 이미화(전주)씨, 도전상에 손길천(전주) · 김은옥(전주)씨가 수상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 위원장 및 임원과 각 6개의 시 · 군의 지부장들이 참여해 장애인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원봉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행사를 기념하고자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에서는 스포츠 타월 400장과 음료를 기부하고 약 20여명의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라북도지역본부노동조합 관계자가 자원봉사에 동참하게 됐다. /김재훈 기자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와 전주매일신문사가 주최한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2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은 김양욱 대회 본부장과 손명엽 제전위원장, 가요제 참가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초청환씨가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모습.



무대 위에서 열창을 하고 있는 이운봉씨. 이씨는 이날 가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휠체어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김동복씨. 그는 박대홍씨와 함께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대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양욱 대회 본부장(사진 왼쪽부터), 황의욱 전북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손명엽 제전위원장.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 수정이.



장애인가수 송용섭씨(사진 왼쪽)의 축하무대와 호응을 하고 있는 장애인 관중.



축하공연을 하고 있는 한국 고고장구 전주분원생들.



견우와 직녀의 축하무대.



상장과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김동복씨.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은 황의욱 이사장과 손명엽 제전위원장.



전주시장 표창장을 받은 박현군 북음상사대표(사진 오른쪽).